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보다 나은 정부

2019년 9월 25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 24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9. 24.(화)	담당부서	조선해양플랜트과
담당과장	윤성혁 과장(044-203-4330)	담 당 자	김형석 서기관(044-203-4331) 최준근 사무관(044-203-4336)

「제16회 조선해양의 날」 개최

-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주 세계 1위 달성 다짐 -
- 권오익 대우조선해양 전무(은탑산업훈장) 등 총 30명 포상 -

□ **『제16회 조선해양의 날』** 행사가 9.24.(화)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공동주최로 서울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렸다.

○ 이날 행사에는 **정승일 산업부 차관, 이성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등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인사 300여 명이 참석**했다.

○ 조선해양의 날은 선박수주 1,000만 톤을 돌파한 '97.9.15.을 기념해 '조선의 날'을 제정하고 '04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, '11년부터 '조선해양의 날'로 명칭을 변경하여 진행되고 있는 행사이다.

□ 이 날 행사에서 조선해양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우조선해양(주) 권오익 전무가 은탑산업훈장을, 휴먼중공업(주) 나영우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수상하는 등 **총 30명이 정부표창**을 받았다.

* 은탑산업훈장 1명, 산업포장 1명, 대통령표창 3명, 국무총리표창 3명,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19명, 특허청장 표창 3명

○ 특히, 대우조선해양 권오익 전무는 37년 간 업계에 종사하면서 이중연료 추진 기반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대형 쇄빙 액화천연가스(LNG)운반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기술개발을 통한 수주성과에 기여한 공적을 높이 평가받아 은탑산업훈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.

□ 정차관은 축사를 통해 **“지난해 7년 만의 세계 수주 1위를 회복한 것은 업계의 뼈를 깎는 노력 덕분”**이라며 업계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,

○ “올해에도 **글로벌 발주가 큰 폭으로 감소한 어려운 상황**에서도 중국 등의 자국발주물량을 제외하면 **액화석유가스운반선, 초대형 유조선** 등 고부가가치 선박 발주의 대부분을 우리가 수주하는 등 **주요국과의 경쟁에서 우위**를 점하고 있다”면서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.

- 또한, “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으로 **조선업을 둘러싼 불확실성**이 크지만, **국제해사기구(IMO)의 선박 환경규제**가 내년부터 본격화되고, 올 하반기 이후 **대형 프로젝트의 발주**가 예상되는 만큼 업황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”고 하였다.

○ 정차관은 최근 **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산업생태계를 되돌아보는 계기**가 되었다며,

- **산업경쟁력과 기술자립** 수준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**핵심소재와 부품, 장비의 공급 안전성**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으며, **액화천연가스운반선 등 주력선종의 핵심기자재 국산화**를 위해 지속 노력해줄 것을 강조하였다.

- 또한, 굳건하고 활기찬 조선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**중소조선소와 기자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, 우수 인력이 끊임없이 공급**되어야 한다고 말했다.

- 아울러 **1990년대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**로 2000년대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선 것처럼 조선산업이 다시 한 번 **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·산업강국의 초석**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□ 이 날 행사에 참여한 조선해양업계 관계자들도 **핵심기자재의 국산화 등 기술자립화와 친환경·스마트선박 분야에서 초격차 유지**를 위해 상호 협력과 공조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.

【붙 임】 1. 『2019년 제16회 조선해양의 날』 행사 개요
2. 정부 포상 수상자 명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최준근 사무관(☎ 044-203-433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「제16회 조선해양의 날」 행사 개요

□ 행사개요

○ **(일시·장소)** '19.9.24(화) 18:00~20:00, 서울 양재 엘타워(그레이스홀, 6층)

* 선박수주 1,000만톤을 돌파한 '97.9.15일을 기념해 매년 9.15일을 '조선의 날'로 제정하고 '04년부터 기념 개최('11년부터 '조선해양의 날'로 명칭 변경)

○ **(주최)** 산업통상자원부, 조선해양플랜트협회

○ **(참가자)** 산업부 차관, 조선사 및 기자재업계 대표 등 약 300여명

* 주요인사 :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이성근 회장(대우조선해양 사장), 현대중공업 가삼현 사장, 삼성중공업 남준우 사장, 한국조선기자재조합 강호일 이사장, 조선학회 조대승 회장 등

□ 개막식 일정(9.24(금) 18:00～20:00)

구분	시 간	내 용	비 고
식전 행사	17:30~17:55	VIP 환담	VIP대기실
기념 행사	17:54~17:55	VIP 행사장 입장	
	17:55~18:00	기념촬영	
	18:00~18:05	개회선언/국민의례/내빈소개	
	18:05~18:10	기념사	협회
	18:10~18:35	정부포상 및 산업부장관표창 시상	산업부
	18:35~18:40	축사	
	18:40~18:45	특허청장 표창 시상	특허청
	18:45~19:00	우수조선해양인 상 시상	협회
식후 행사	19:05~20:00	만찬	

붙임 2 **정부 포상 수상자 명단(국무총리표창 이상)**

훈격	소속	직위·성명	사진	공적요지
은탑산업훈장	대우조선해양㈜	전무 권오익		■ **37년간 기술개발 주도, 수주성과에 기여** - 세계 최초 이중연료 추진기 기반 초대형 컨테이너선 개발 → 11년 20척 수주, 15년 11척 추가 수주 - 세계 최초 대형 쇄빙LNG선 개발 → 야말 프로젝트용 쇄빙LNG선 15척 수주 ⇒ (의의) 북극항로 본격 활용계기 마련, 한.러 경제협력에 기여
산업포장	휴먼중공업㈜	대표이사 나영우		■ **중소조선업 및 조선기자재 산업 발전에 기여** - 수입의존 함정기자재(방음도어, 알루미늄 교정장치 등) 국산화 - 08년 회사 창립, 15년 대비 18년 매출 34억에서 144억, 근로자수 34명에서 62명으로 성장
대통령표창(3)	현대중공업(주)	상무보 김남식		■ **생산공법 개선 및 표준화로 경쟁력 강화** - 기관실 Pipe 설계기준 정립, GMAW 로봇자동용접기 도입, 신규 재현기 개발 및 국산화 등 ■ **협력사 창업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** - 비핵심 간접업무 분야 외주 협력화로 비용 절감(연 95억원) 및 일자리 창출(17년 창업, 38명 근무)
	현대삼호중공업(주)	부장 김태문		■ **원가관리 강화 및 협력업체 간 상생경영 실천** - 선형별 표준원가 정립 및 재무 ERP 도입·개선 등 원가절감 활동 강화 - 자재대 월 3회 현금 지급으로 협력업체 유동성 확보 기여, 협력업체 무이자 자금대여 등
	(재)중소조선연구원	수석연구원 김남훈		■ 조선업 불황과 구조조정 극복을 위해 **정부 역점 추진 '조선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'사업 성공적 수행** ■ 해양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창업 지원에 기여 - 해양산업과 융복합부품소재산업의 연계협력 모델 마련 → 예타 통과 후 15년부터 사업추진 중
국무총리표창(3)	(주)파나시아	본부장 이수규		■ **핵심제품 국산화 및 수출로 국내 조선기자재 경쟁력 강화** - 선박용 수위계측 시스템 개발,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 및 상용화 등 - 선박용 배기가스 정화장치 개발 → 5,800억원 규모의 대형 수주 달성(세계 시장점유율 1위 달성)
	삼성중공업㈜	파트장 윤재균		■ 23년4개월동안 영업담당자로 선박 지속 수주, **조선산업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** - 18년 LNG선 18척 및 VLEC 3척 수주 - 15년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총 10척 수주 - 14년 북해 운항용 쇄빙 유조선 6척 단독 수주
	현대중공업(주)	부장 한범우		■ **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주 증대에 기여** - 기존 대비 5% 가량 화물 양이 증가한, 세계 최대 화물적재 84K LPG운반선 개발 - 친환경 엔진, 고효율재액화 설비 탑재 LNG 운반선 개발 → 대규모 LNG운반선 수주 (18년 24척, 세계 1위)